

Vol. 20 No. 949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March 22 2024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 한류가 보스톤미술관의 주인공, 역사적 전시회 시작된다

## 보스톤미술관장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시도했다” 보스톤미술관 한류 전시회 미디어 사전 관람전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미술관(이하 MFA)에서 3월 24일부터 역사적인 대규모 한류(Hallyu-The Korean Wave) 특별 기획전시회가 시작된다. 한류가 보스톤미술관의 주인공이 된 전시회가 드디어 현실화 된 것이다.

보스톤 미술관이 정통 미술관으로서 처음으로 한국가의 문화산업 발전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보스톤 미술관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과 함께 미국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힌다.

3월 19일 열린 언론 시사회에서 매튜 타이텔바움 보스톤미술관장은 “(한류 전시회는) 아

주 특별한 전시회다. 현실화되기까지 아주 오래 걸렸다.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고 밝혔다.

타이텔바움 관장은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해 보고 싶었다. 동시에 미술관의 오랜 역사와 1890년대 이후 한국 예술품들을 수집해온 미술관의 노력에 존중을 표하고 싶었다. 보스톤 미술관은 세계의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기관으로 형성됐다. 우리는 미국 예술품에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아시안 예술품에 주목해왔다. 세계의 문화가 이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보여주기 싶었다” 라고 전시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시사회에 참여한 보스톤 지역 언론들은



보스톤 미술관에 걸려 있는 한류 전시회 플래카드. 미국 3대 미술관 중의 하나인 보스톤 미술관이 한류를 주인공으로 24일부터 7월 말까지 5개월간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류가 어떻게 세계적인 특별한 현상이 됐는지, 그리고 왜 보스톤 미술관에서 한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크리스티나 유유 아시아예술품 담당 수석 큐

레이터는 “한국은 할리우드의 역사를 뛰어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한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바탕이 되어서 새로운 현상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5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칭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특별한 보상. 전문적인 권리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랫 인사이드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재미과기협 차세대 온라인 드론캠프 개최

## 5월 27-30일 4일간 미전역에서 시행, 100명 선착순으로 등록 마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손용호)는 차세대 과학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미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 및 KSEA 회원 자녀인 6-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온라인

드론 캠프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KSEA 인터스테이트 드론 리그(Interstate Drone League: iDrone) 온라인 캠프는 오는 5월 27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4일간 오후 6시(동부시

간 기준)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3시간씩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등록 마감은 오는 2024년 4월 7일 일요일 자정까지며, 캠프 웹사이트(<http://idrone.ksea.org> 또는 <https://www.idroneprogram.org/ksea>)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은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되며, KSEA 회원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2024년 회원 갱신을 한 KSEA 회원 가족은 소속 지부장으로부터 할인 코드를 받아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프 참가 신청을 완료하면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함께 준비물(드론 포함)이 각 가정으로 배송된다. 캠프가 끝난 후에도 참가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self-paced learning)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KSEA는 드론 캠프에서 팀별(3-5명 학생으로 구성) 포스터 발표를 통해 우수한 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팀은 KSEA 과학기술 분야별 멘토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4(<https://www.ukc.ksea.org/>)) 행사에 참여해 발표할 수 있다.

선발된 팀(고등학생 2명 필수 포함 5명)은 UKC 2024 기간 동안 스탠포드대학 등 근처 대학 방문, 구글 등 기업 방문, 스타트업 강연 참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1971년 워싱턴 DC에서 한인 유학생 69명으로 창설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한인 1세뿐 아니라 1.5세, 2세, 3세 한인과학기술자

들이 대거 회원으로 가입하여 세대 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내 70여개의 로컬 지부와 16개의 기술 그룹과 함께 7,000여 명의 활동 회원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으며, 과학, 기술, 창업 분야에서의 커리어 기회 확대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장려하는 미션을 갖고 활동 중이다.

- ▶ 온라인 드론 캠프 등록 : <http://idrone.ksea.org>
- ▶ 프로그램 문의 : [idrone@ksea.org](mailto:idrone@ksea.org)
- ▶ KSEA 회원 등록 : <https://www.ksea.org/signUp>
- ▶ KSEA 홈페이지 : <http://ksea.org>



(사진뉴스) 미셸 우시장의 음력설 및 후원행사가 3월 11일 월요일 오후 5시 반부터 보스톤 시내 페어먼트카플리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인사들과 아시안계 리더들이 참여했다. 한인 사회에서도 장영수 한인회장, 한미정치력신장연대 김성혁 대표 등이 참여했다. (사진 제공=한미 정치력신장연대)



### 3월 27일부터 재외선거 시작, 올해부터는 2개 투표소 운영

뉴튼 보스턴총영사관에선 6일간, 우번 한인회관은 주말동안 영주권자는 여권과 영주권, 나머지 유권자는 여권 지참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7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 뉴튼에 위치한 보스턴총영사관과 우번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한인회관 등 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보스턴총영사관에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 반면 한인회관에서는 3월 29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일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3일동안에만 투표가 가능하다.

총영사관을 방문시 주차는 거리 주차 또는 바로 옆 포포인츠쉐라톤호텔(Four points Sheraton)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호텔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총영사관은 주차권을 발급한다. 우번의 한인회관에는 노상 주차 또는 건물 바로 옆 공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국의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 모든 유권자는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영주권자는

반드시 여권과 영주권을 함께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보스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남궁연 위원장은 “이번 22대 총연 때에서 대한민국 선거를 가장 공정하고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며, 그동안 항상 좋은 성과를 올려주신 뉴잉글랜드 유권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제1투표소: 보스턴 총영사관 300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

2024년 3월 27일(수)부터 4월 1일(월)까지 6일간 매일 08시부터 17시까지

제2투표소: 매사추세츠 한인회관: (13 Campbell Street, Wobum, MA 01801

2024년 3월 29일(금)부터 3월 31일 (일) 3일 동안 주말포함 매일 08시부터 17시까지

bostonkorean@hotmail.com

### 대한민국 제 22대 총선 신고, 신청을 하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주내에 10개 공관 산하에 설립한 보스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중에서 신고 신청을 한 유권자 여러분들께 투표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우리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투표소 2개소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주 보스턴 총영사 (300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에서 2024년 3월 27일(수)부터 4월 1일(월)까지 주말포함 6일간 매일 08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투표인께서는 자동차 주차는 총영사관 인근에 노상주차 또는 총영사관 바로 옆 포포인츠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주차장 사용시 주차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번째, 매사추세츠 우번시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한인회(13 Campbell Street, Wobum, MA 01801)에서 2024년 3월 29일(금)부터 3월 31일 (일) 3일 동안 주말포함 매일 08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됩니다. 한인회관에는 노상 주차 또는 바로 옆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음

제1투표소: 보스턴 총영사관 2024년 3월 27일(수)부터 4월 1일(월)까지 6일간 매일 08시부터 17시까지

제2투표소: 매사추세츠 한인회관: 2024년 3월 29일(금)부터 3월 31일 (일) 3일 동안 주말포함 매일 08시부터 17시까지

참고사항 :투표하러 오실 때 반드시 지참하셔야 될 것들

국외부재자: 여권 지참

재외선거인 : 여권과 영주권

저희 보스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22대 총연 때에서 대한민국 선거를 가장 공정하고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며, 그동안 항상 좋은 성과를 올려주신 뉴잉글랜드 유권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모든 선거관리위원님을 대신하여 위원장인 제가 드립니다.

선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선거팀 (617-641-2830)이나 또는 ovboston@mofa.go.kr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남궁연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수석 무용수 채지영 보스턴 발레 신데렐라 오프닝 주연

### 최근들어 잇달아 보스턴 발레 오프닝 주연, 간판 스타 발돋움 솔로리스트 이선우도 재스터 역 맡아 뛰어난 안무 선보여

(보스턴=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턴발레 수석무용수인 채지영씨가 지난해 말 호두까기인형에 이어 보스턴발레단의 클래식 발레의 오프닝 무대 주연을 차지하며 보스턴 발레 간판 발레리나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지난 13일 신데렐라 오프닝 공연에서 보스턴 발레단은 정교한 안무와 유머스러운 연출로 관객들을 사로잡아 열정적인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특히 주연을 맡은 채지영은 빼어난 안무와 연기 그리고 왕자역을 맡은 제프리 사이리오와 호흡으로 관객들을 발레의 세계로 몰입시켰다. 보스턴 발레는 과거 간판 스타였던 미사쿠라가나의 공백을 이제 채지영으로 완벽히 메운 듯했다.

보스턴글로브의 발레 전문 제프리 갠츠 기자는 “최근 보스턴발레의 무대가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채지영과 제프리 사이리오가 맡은 신데렐라 공연은 그 중에 최고였다” 고 칭찬했다.

채지영의 안무에 대해서 갠츠 기자는 “신데렐라 1부에서는 즐거움에 가득찬 신데렐라를 보여주었다. 포인트워크는 시적이고 정교했으며 극히 음악적이었다. 회전은 정확하고 잘 조정되었다. 애쉬튼의 발레 스타일이 이처럼 깔끔하고 확연하게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고 극찬했다. 채지영과 호흡을 맞춘 왕자역의 제프리 사이리오에 대해서는 “춤 선보일 기회가 적었지만 그럼에도 훌륭하게 안무를 찾으며 특히 채지영과 호흡을 맞출 때 정말 뛰어났다” 고 말했다.

보스턴 발레의 프레드릭 애쉬튼 버전의 신데렐라 공연에서 계모와 이복 누이의 역할은 악역 대신 여장 남자들의 코믹과 즐거움으로 대체되었다. 두 이복 누이들은 집에서 스카프를 두고 다투었고 왕자가 주최하는 무도회에서는 나폴레옹과 웰링턴을 두고 계속 다투며 관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폴 크레이그와 존 램이 연기한 두 누이들의 천연덕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춤과 연기는 공연을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촉매제가 됐다.

이날 재스터 역을 맡은 솔로리스트 이선우씨도 맹활약을 보였다. 등장부터 깜짝 놀라게 하는 점프로 관객을 사로잡았으며 왕자의 무도회를 주도하는 듯한 뛰어난 안무를 선보여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보스턴 발레가 페드릭 애쉬튼 안무의 신데렐라를 시티즌스뱅크 오페라 하우스에서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공연한다.

미코 니시넨 보스턴 발레 예술 감독은 “신데렐라는 애쉬튼은 시그니처인 어려운 발레 동작과, 사랑받는 스토리라인, 풍부한 무대의상과 세트 특별한 음악까지 최상의 클래식 발레



13일 오프닝 무대에서 신데렐라를 연기하고 있는 채지영. 사진 = 보스턴발레 LizaVollPhotography



LizaVollPhotography, Courtesy of Boston Ballet

를 선사한다” 면서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이 시대를 초월한 걸작의 마법에 빠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티켓은 617-695-6955, [www.bostonballet.org](http://www.bostonballet.org)  
editor@bostonkorea.com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 Dedicated to Your Health

####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mailto: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http://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 한류가 보스톤미술관의 주인공, 역사적 전시회 시작된다

▶▶1면에 이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이번 한류 전시회에 대해 설명했다.

유 수석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전시이며 (한국의) 매혹적인 역사를 다양한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정이다. 또한, 한국 대중 문화의 기원, 진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다루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전시" 라고 소개했다.

전시회장은 방문자 센터 지하의 앤 앤 그래햄건드 갤러리(Ann and Graham Gund Gallery)에 마련되어 있다. 전시회장 입구에는 가수 사이의 다양한 모습들이 장식되어 있지만 전시회장을 들어서면 한국의 과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1970년대의 한국의 흑백사진, 삼성전자의 티비, LG의 화장품, 현대의 포니 등 지금의 한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영화 '기생충', '올드보이', '엽기적인 그녀' 등을 통해 영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 한복과 패션, 사진, 비디오, 팝컬처, 현대 예술 작품 등 약 200여 점이 전시된다.

이와는 별도로 '과친코'의 작가 이민진 작가와의 대화, 다양한 한류 학술 강연, 시카고 예술원의 국악 공연, 학생증을 제시한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한류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한류 칼리지 나잇 등이 준비되어 있다. 한국영화제도 열릴 예정이다.

보스톤 총영사관은 이번 한류 전시회를 맞아 표어를 "한류로 채워질 보스톤의 봄"으로 정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이번 한류 전시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까지 잘 준비됐다. 지금부터는 한국 동포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보스톤 미술관의 한국실은 너무 적어 늘 아쉬움을 품고 문을 나서야만 했다. 이제는 보스톤미술관을 방문하면 주인공이 된 한국과 한류를 만나볼 수 있다. 미국 최초의 한류 전시회, 세계 최초의 정통 미술관의 한류전시회란 역사적 순간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 티켓은 MFA 웹사이트(Mfa.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케이팝 커버댄스를 선보이고 있는 OFFBRND



LG, 삼성, 현대의 과거 모습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박물관 직원인 줄리아 김씨의 가족 사진, 김씨는 자신 가족이 미술관에 전시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19일 언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매튜 타이텔바움 보스톤 미술관장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수수료 변화 주택구매, 더욱 복잡해지고 더 비싸질 수 있어

NAR의 합의로 주택 판매 수수료 낮아져, 집사기 더욱 힘들어질 듯 새로운 수수료 체계 확립시까지는 2-3년은 더 걸릴 듯 숙련된 부동산 중개인들에게는 호재, 신입 파트타임 중개인은 악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합의에 따라 집 매도인이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재의 부동산 매매 관행이 오는 7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집을 팔고사는 절차가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지고 비싸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NAR은 1백 60만명의 회원을 보유해 사실상 미국내 부동산 산업계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번 4억1천8백만 달러의 합의를 판사가 승인하는 경우 NAR은 더 이상 집 매도인의 중개인(sellers' agents)이 받은 수수료를 구매인의 중개인(Buyer's Agent)과 수수료를 반반으로 나누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게 된다. 보통 매도인은 5-6%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이는 두 중개인들이 반반으로 나누어 갖는다.

집을 소유한 매도인(seller)들은 팔고자 하는 집을 매물로 내놓을 때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한다. 이 계약시, 매도인은 중개인에게 집 매각이 완료되면 판매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commission)로 지불하기로 한다. 이 수수료의 퍼센트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중개인들은 이를 집 소유주에게 반드시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이번 변화로 집을 내놓는 매도인들은 수수료 결정시 더 많은 협상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구매자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면서 수천달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개인들은 집 매물을 함께 둘러보고, 오퍼(Offer)를 제시하고 추후 구매 및 매도 계약인 P&S(purchase-and-

sale agreement)를 처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구매자의 중개인은 매도인의 중개인으로 부터 수수료의 절반을 받았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집의 판매 가격에 반영됐다. 따라서 구매인은 따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변화가 7월 중순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업계의 관행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점차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 매매 방식이 정착될 때까지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의 매매 과정에서 구매자, 매도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새로운 매매 방식이 정착될 때까지 과거처럼 집의 구매와 다운페이먼트, 그리고 모기지 확보 등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많은 예측 불가능성 즉,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주거용 부동산 매매는 매년 약 1천억달러의 수수료를 발생시켰다. 경제학자들은 매매의 양쪽 중개인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수수료가 약 30%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매사추세츠를 예로 들어보자. 워렌그룹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매사추세츠 주택의 중간가격은 \$570,000이었다. 만약 현재의 표준인 6%가 아닌 30%가 낮아진 4.8%가 된다면 매도인은 수학적으로 \$6,840 절약할 수 있다. 그레이터 보스톤의 주택의 1백만달러 주택이라면 \$12,000를 절약하게 된다.

집 매도인들을 대변해 NAR을 고소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매도인의 절약은 집값의 하



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매자의 중개인들은 비싼 집 판매로 챙기는 수수료의 인센티브가 없어지기에 비싼 집 판매를 권유하는 '스티어링'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913년 이래 100여년 동안 정착되어 온 부동산 수수료 관행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다. 소비자연맹 대표인 스티븐 브로백은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수년 동안은 이 관행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과 부동산 중개인들 중 상당수가 과거의 관행을 탈피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수수료가 집 판매가에 포함되는 것이 계속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 누구에게 가장 좋을까?

집을 파는 매도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집주인이 모든 판매 수수료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매도인의 중개인은 더 이상 2.5%-3%의 수수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중개인은 많은 구매자들로부터 오퍼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나눠야 한다는 부담도 받게 될 수도 있다. 추후 집주인들은 수수료를 퍼센트로 주지 않고 확정된 서비스비용으로 지불할 수도 있게 된다.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다. 매도인이 수수료를 적게 낸다는 가정 하에 원하는 가격을 아주 낮게 설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다. 심지어 호가를 낮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구매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데 낮아진 가격만큼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 수수료를 선불로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다운페이먼트가 줄어들게 되므로 모기지 비용이 줄거나 좀더 저렴한 집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중개인이 없이 집을 사려 한다면 일이 많을뿐더러 가장 큰 투자에 위험이 동반될 수도 있다.

구매자를 대변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수수료를 매도자 중개인으로 부터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노력에 비해 소득이 적을 수도 있다. 특히 질로우(Zillow), 레 >>7면으로 계속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 미국 부동산 판매시장 지각 변동, 집 사고파는 방법 바뀐다

▶▶6면에 이어서

드핀(Redfin) 등의 웹사이트에 많은 많은 집 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매도인의 중개인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일정부분을 지불하거나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구매자의 중개인은 앞으로 반드시 구매자와 구체적인 보상관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관행이 거의 사라졌으나 매물 소개, 오피 제시, P&S, 그리고 클로징 등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정확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간에 따라 서비스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첫주택 구입자의 경우 새로운 수수료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집 구매관련 정보와 경험이 없어 중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개인 수수료에 대한 이해도 어렵고 선불로 내는 등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체제가 좀더 이어지게 될 것으로 낙담하기에는 이르다.

투자은행 키페, 브루엣앤 우즈의 2023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수수료 체계가 바뀌는 경우 수수료 수입이 30% 정도 적어질 것이며 미국내 부동산 중개인의 수는 현재 보다 적은 60%에서 80% 수준까지 적어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연맹 대표인 스티븐 브로벡도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직업을 그만두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약 절반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1채 또는 전혀 주택을 판매하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숙련된 부동산 중개인들만 더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신규 진입 또는 부업 부동산업자들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부동산 매매 시장이 역사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미부동산중개인협회(이하 NAR)는 업계의 기본 관행이던 6% 부동산 수수료 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택 매매 비용은 낮아지고 지금까지 집을 사고팔았던 관행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NAR이 4억1천800만 달러(\$418 million)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규정을 없애기로 한 합의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NAR의 합의는 3월 15일 이 단체의 법률고문의 승인을 받았으며 뉴욕타임스는 합의서 사본을 입수했다고 공표했다.

이 합의로 주택 매매시 수수료부과를 강제했던 NAR의 규정에 대한 여러 소송 건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100여년간 존속되어 왔던 미국의 부동산 시장 매매 체제에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부동산 시장이 뒤집히고 새로운 부동산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 지적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집을 파는 매도인의 중개인은 5-6%의 수수료를 제시토록 했다. 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규칙에 따라 판매자 중개인은 집 소유주에게 표준인 5-6% 수수료를 받아 구매자의 중개인과 분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집 판매자가 1백만달러에 집을 매도하려 한다면 매도인은 6만달러의 수수료를 당연히 예상했다. 판매 후 3만달러는 구매자 중개인에게 나머지 3만달러는 판매자 중개인이 갖게 된다. 따라서 6만달러는 집 판매시 최종 판매금액에 포함시켜서 팔게 된다.

NAR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적용되는 아무런 규칙도 만들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수



료 절반을 나누는 규정도 폐지토록 함에 따라 구매자를 더 비싼 집으로 유도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겼던 이른바 '스티어링(steering)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인(steller's agent)이 집 매도인으로부터 받던 표준 수수료율인 5% 또는 6%를 폐지하고 수수료 협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인들은 매년 수수료로 1천억달러(\$100 billion)를 지불해 왔다.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평균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도록 작용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

합의 이후 NAR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적용되는 아무런 규칙도 만들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수수료 절반을 나누는 규정도 폐지토록 함에 따라 과거에는 구매자를 더 비싼 집으로 유도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겼던 이른바 '스티어링(steering)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 지금껏 NAR는 주택 리스팅 데이터베이스 MLS(multiple listing sites)를 관리해왔지만 완전히 금지된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오피와 추후 커미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real estate agent)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가격 모델과 서비스 제공 방식이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합의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구매 및 판매 과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주택 시장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에 새로운 판이 깔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변화는 항상 혼동을 동반한다. 올해 7월 정도부터 시작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마켓은 일정기간 혼동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2024 아시아 베스트레스토랑 국제 미식행사 서울에서 열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국내 최초 서울서..아시아 셰프들 몰려 26일 화요일 1~50위 레스토랑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올해의 아시아 최고 레스토랑을 발표하는 국제 미식 행사가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식계의 아카데미라 불리는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이 3월 23일부터 5일간 서울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8시에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올해의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발표가 생중계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sia's

50 Best Restaurants)'은 미쉐린 가이드와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식 평가 가이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싱가포르, 방콕, 마카오 등 아시아 주요 관광 도시에서 열렸으며, 올해 12 번째 개최 도시로 '서울'이 선정됐다. 지난 13일, 국내 한식당 5곳이 미리 공개된 51-100위에 선정됐으며, 이번 1-50위 안에는 몇 개의 국내 식당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셰프

와 미식가, 평론가, 미디어 등 관계자 800여 명이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신라호텔, 포시즌스호텔 등에서 열리는 시상식과 만찬, 포럼 등 공식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내외 미식 관계자에게 서울 미식을 알리기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서울미식 100선 레스토랑' 스타 셰프(7팀)와 영 셰프(6팀)가 한국 식재료를 활용해 파인다이닝을 선보이는 서울미식 홍보존과 사찰음식, 발효문화 등을 주제로 한 한식워크숍을 운영한다.



특히 3월 26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는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강남구 삼성동)에서 올해의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1~50위 발표와 함께 시상식이 열린다. 시상식은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베스트 레스토랑 순위'는 전세계 아시아의 음식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인단(3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다. 행사에 앞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이 공개한 올해 51100위 식당에는 국내 한식당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51-100위에 선정된 곳은 이

타닉 가든(62위), 본앤브레드(64위), 솔밤(65위), 권숙수(89위), 알라프리마(91위)로, 지난해 국내 한식당 중 100위 안에 선정된 총 7곳 중 4곳은 상위 50위 안에 들어 한식의 위상을 높였다.

※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공식 유튜브 브 [www.youtube.com/@worlds50best](http://www.youtube.com/@worlds50best) '23년 아시아 50 베스트 국내식당: 모수(15위), 온지음(2위), 밍글스(28위), 본앤브레드(47위), 주옥(51위), 세븐스 도어(55위), 이타닉 가든(68위) [hsb@bostonkorea.com](mailto:hsb@bostonkorea.com)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mailto: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mailto: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졸업후 5년간 연봉이 가장 낮은 미국대학 16개 전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문학, 공연예술, 그리고 신학 전공 학생들은 대졸 후 5년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연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세 전공 졸업생의 중위 연봉은 \$38,000로 75개 대학 전공 중에 가장 낮은 연봉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에 낮은 연봉 전공들로는 레저 및 관광, 역사, 미술 그리고 심리학이 있으며 중위 연봉은 \$40,000이었다. 이 수치는 2022년 미국 평균 중위소득인 \$40,480보다 낮다.

인문학 전공 졸업자들은 전체적으로 낮은 연봉을 받는데 이들의 기술이 매출과 직접 연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졸업자 수에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며 이는 미술 전공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교육학 전공도 낮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며 여름방학 때 휴식을 취하고 연금혜택도 받지만 주정부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교사의 연봉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교사는 경력이 쌓여도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모든 전공 중에 가장 낮은 보상을 받는 직업중의 하나다. 특히, 유아교육 전공은 추후 중년이 됐을 때 모든 전공 중 최저의 연봉을 받으며 중위소득은 \$48,000에 불과하다. 이는 졸업직 후 받는 \$40,000에서 겨우 \$8,000 오른 금액이다.

반면 최고의 연봉을 받는 직업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중년 모두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 즉 STEM 분야에 속해있다. 엔지니어는 컴퓨터 엔지니어와 함께 대학 졸업 후 가장 높은 중위소득을 기록했으며 연봉은 \$80,000이었다. 35-45세가 됐을 때 연봉은 \$133,000로 늘었다.

대졸 후 중년이 됐을 때 소득은 미국의 평균 중위소득인 \$40,480보다 높았으며 모든 전공의 중위소득은 \$75,500이었다.

이번 뉴욕 연준의 자료는 2022년 미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25-65세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대상을 조사한 것이다.

### 대졸 후 초봉

Liberal arts	\$38,000
Performing arts	\$38,000
Theology + religion	\$38,000
Leisure + hospitality	\$39,700
General social sciences	\$40,000
History	\$40,000
Miscellaneous biological science	\$40,000
Fine arts	\$40,000
Treatment therapy	\$40,000
Nutrition sciences	\$40,000
Psychology	\$40,000
Anthropology	\$40,000
Family + consumer sciences	\$40,000
Social services	\$40,000
Elementary education	\$40,000
Early childhood education	\$40,000

### 35-45세시 중년의 연봉

Early childhood education	\$48,000
General education	\$52,000
Elementary education	\$52,000
Secondary education	\$55,000
Miscellaneous education	\$56,000
Social services	\$56,000
Theology + religion	\$56,000
Special education	\$57,000
Family + consumer sciences	\$59,000
Performing arts	\$64,000
Health services	\$65,000
Nutrition sciences	\$65,000
Psychology	\$65,000
Anthropology	\$65,000
Liberal arts	\$65,000
Foreign language	\$66,000

hsb@bostonkorea.com

# 김도연 밴드, 뉴욕 문화원 무대 선다

## 뉴욕한국문화원 제2회 영 코리안 아티스트 시리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이 이끄는 '김도연 밴드' 가 오는 3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뉴욕한국문화원 극장 무대에 올라 가야금과 서양악기가 결합된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한국음악을 전공한 연주자 최초로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 즉흥음악과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김도연은 그레미 어워드가 선정한 "미래지향적 뮤지션" 으로 인정받으며 현지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주뉴욕한국문화원과 CJ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제2회 (영코리안 아티스트 시리즈(Young Korean Artists Series))의 일환으로 실력과 비전을 갖춘 전도유망한 차세대 신진 한국 아티스트를 뉴욕 무대에 소개하여 향후 주류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인 뮤지션들의 공연과 더불어 다수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단편영화를 시리즈로 상영,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유명 재즈 뮤지션들과 함께 뉴욕 재즈센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류다빈이 이끄는 '류다빈 밴드' 의 공연이 이어진다.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류다빈은 2024년도 UNISA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재즈 피아노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허비행록 재즈 컴피티션에서 세미파이널리스트로 발탁된 재즈 유망주이다.



4월 6일(토)에는 신진 한인 영화감독들의 우수 단편영화 상영회, "스토리업 쇼츠 인 뉴욕" 이 개최된다. 한국 청룡영화상 단편상 수상작인 (새벽 두시에 불을 붙여)(유종석),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단편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철학>(이준섭) 등 다양한 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작품 총 6편을 엄선하여 오후 2시와 5시, 총 2회에 걸쳐 상영할 예정이다. 제2의 박찬욱, 봉준호 감독을 꿈꾸는 한국의 젊은 감독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온라인 예약이 필수이다. 상세 내용은 뉴욕한국문화원 홈페이지(koreanculture.org) 및 페이스북 (@KoreanCulturalCenterNY)과 인스타그램(@kccn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뉴욕한국문화원 ☎212-759-9550으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성 안토인 디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yahoo.com



## I've helped 41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4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Awards/Honors:

- 2022, 2023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Achieved top-ranked (#1) solo agent status at Compass Cambridge Office, demonstrating top performance in sales and client satisfaction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 List
- Hosted the Boston episode of 'The American Dream', a national TV show, highlighting Boston's real estate, and lifestyle to a nationwide audience

# COMPASS

Achieved in 2023

## \$25M+

TOTAL SALES

## 40+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연준, 기준금리 5.25~5.50% 유지 ...연말까지 3회 금리인하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작년 12월에 예상한 수치와 같은 4.6%로 예상하며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5.25~5.50%,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연준은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은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왔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고 밝힌 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FOMC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은 5회 연속을 기록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6%로 예상하며 작년 12월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작년말 FOMC 발표와 마찬가지로 2024년 안에 0.25% 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것이다.



3월 FOMC 결과 설명하는 파월 연준 의장

다만 연준은 2025년말 기준금리를 3.9%로 예상함으로써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3.6%)에서 0.3% 포인트 높였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다.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난해 7월 이래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작년 일정한 성공을 거둬 인플레이션이 수십년 사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2년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예고됐지만 최근 다시 예상을 웃도는 물가 상승 수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는 다소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일례로 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PP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시장 예상치인 0.3%를 훌쩍 넘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에 연중 3차례 금리인하 구상을 고수함에 따라 6월 이후 잇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연준은 또 연말 실업률을 4.0%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의 예상치인 4.1%에서 소폭 하향했다. 아울러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의 예상치인 1.4%에서 0.7% 포인트 높였다.

또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와 같은 2.4%를 고수했고,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2.6%로 직전 대비 0.2%p 높였다.

# 파월 "2% 인플레 여정 험난... 두 달 높았다고 바뀐 것 없어"

양적 긴축, 조만간 속도 늦추는 것 적절하다에 공감대 형성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 수준인 2%로 둔화하기까지 여정이 평탄치 않고 울퉁불퉁(bumpy)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달간 기대를 웃돈 물가지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로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기초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뒤 연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그곳(1~2월 지표)에서 너무 많은 신호를 끄집어내지 않았다"라고 했다.

연준이 지속적으로 2% 물가 목표 달성이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만큼 한두 달 지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그는 "1~2월 물가 지표가 2% 물가 목표 달성의 자신감에 힘을 보탤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연준이 지난 2개월간 좋았던

물가지표를 과도하게 자축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통화정책 사례는 금리를 선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준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해 "임금 상승세가 완화하고 구인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지만 FOMC 참석 위원들은 노동시장 재균형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지속해서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FOMC에서 양적긴축(QT)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파월 의장은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한 이후 보유 증권이 약 1조5천억달러 감소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자산매각 속도를 줄이는 이슈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조만간(fairly soon)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R. 22nd - MAR. 28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SPICE UP YOUR DAY WITH GOCHUJANG BRAISED EGGS!

This no-brainer recipe will introduce you to spicy, sweet, and savory flavors of Korean cooking.

매콤달달한 밥도둑, 고추장 달걀조림의 초간단 레시피를 H 마트가 공개합니다.



<p><b>Sweet Potato</b> 고구마 10 LB/BOX <b>\$17.99</b></p>	<p><b>Packed Garlic</b> 팩마늘 5 PCS/PKG <b>\$1.99</b></p>	<p><b>Yellow Papaya</b> 옐로우 파파야 LB <b>\$1.29</b></p>	<p><b>Kabocha</b> 단호박 LB <b>\$0.99</b></p>	<p><b>Fuji Apple</b> 후지사과 LB <b>\$1.99</b></p>
<p><b>Orri Mandarin</b> 오리 만다린 LB <b>\$2.99</b></p>	<p><b>Sweet Potato</b> 고구마 LB <b>\$2.49</b></p>	<p><b>Ginger</b> 생강 LB <b>\$2.99</b></p>	<p><b>PULMUONE Tofu</b>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b>\$3.99</b></p>	<p><b>Honey Ataulfo Mango</b> 허니 아틀포 망고 BOX <b>\$19.99</b></p>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Fresh Beef Top Blade Steak</b>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9.99</b></p>	<p><b>Fresh Pork Single Belly</b>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b>\$6.99</b></p>
<p><b>Fresh Boneless Chicken Thigh</b> 생 뼈없는 닭 사태 LB <b>\$2.99</b></p>	<p><b>Frozen Pork Shoulder Butt for Bulgogi</b> 냉동 돼지 목전지살 (불고기용) LB <b>\$5.99</b></p>
<p><b>Frozen Smoked Duck</b> 훈제오리 SLICED/LB <b>\$19.99</b></p>	<p><b>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b> 양념 LA 갈비 SLICED/LB <b>\$14.99</b></p>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Head-on Black Tiger Shrimp</b> 머리있는 블랙 타이거 새우 LB <b>\$24.99</b></p>	<p><b>Frozen Smelt Fish</b> 빙어 3-5 INCH/LB <b>\$2.99</b></p>
<p><b>TONGTONGBAY Frozen Salted Mackerel</b> 통통배 맛있는 곶등어 13 OZ/PKG <b>\$5.99</b></p>	<p><b>TONGTONGBAY Frozen Oyster</b> 통통배 굴 PRODUCT OF KOREA 8 OZ/PKG <b>\$3.49</b></p>
<p><b>TONGTONGBAY Jiri Dried Anchovy</b> 통통배 지리멸치 PRODUCT OF KOREA 8 OZ/PKG <b>\$7.99</b></p>	<p><b>Fresh Catfish</b> 메기 LB <b>\$1.99</b></p>

### SMART CARD MEMBER ONLY

<p><b>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b> 농심 신라면 4.23 OZ X 16 EA/BOX <b>\$11.99</b></p>	<p><b>JINGA Beef Bone Flavored Soup</b>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b>\$10.99</b></p>
<p><b>TONGTONGBAY Jiri Anchovy (Small)</b> 통통배 어린이용 지리멸치 PRODUCT OF KOREA 8 OZ/PKG <b>\$7.99</b></p>	<p><b>NAMYANG French Cafe Coffee Mix</b> 남양 프렌치카페 카페인믹스 2.44 LB (100 STICKS/PKG) <b>\$13.99</b></p>

<p><b>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b> 유기농장 유기농쌀 15 LB <b>\$49.99</b></p>	<p><b>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b>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b>\$12.99</b></p>	<p><b>JINGA Abalone Porridge</b> 진가 전복죽 14.8 OZ X 3 EA/BOX <b>\$10.99</b></p>	<p><b>SEMPIO Soy Sauce</b> 샘표 진간장 S/금S RICH &amp; MELLOW/RICH &amp; DELICATE 57.48 FL OZ <b>\$5.99</b></p>	<p><b>KADOYA Pure Sesame Oil</b>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b>\$16.99</b></p>
<p><b>OSAKI BRAND Fish Cake</b> 오사끼 게맛살 1.1 LB <b>\$6.99</b></p>	<p><b>PULMUONE Rose/Mozzarella Cheese Topokki</b> 풀무원 로제/모짜렐라 치즈 떡볶이 14.1-14.8 OZ <b>\$4.99</b></p>	<p><b>SAJO DAERIM SEON Fish Cake</b> 사조 대림 선 부산어묵 마당놀이2 RECTANGLE 2.2 LB <b>\$5.99</b></p>	<p><b>HAIO Korean Style Noodles - Somen</b> 해오름 소면/막국수 3 LB <b>\$3.99</b></p>	<p><b>ARIZONA FARM Honey Powder</b> 아리조나 꿀 허니 파우더 1 LB <b>\$2.49</b></p>
<p><b>CROWN White Heim/Choco Heim</b> 크라운 초코하임/화이트하임 10.02 OZ <b>\$3.99</b></p>	<p><b>HAIO Aloe Vera Drink</b> 해오름 알로에 베라 드링크 ORANGE/MANGO/POMEGRANATE/KIWI 50.7 FL OZ <b>2\$5 FOR</b></p>	<p><b>Clear Utensil Case</b> 투명 사각 수저함 BEIGE/GREEN <del>\$5.49</del> <b>\$3.99</b> EA</p>	<p><b>HELLO HOME Jumbo Slippers</b> 헬로홈 점보 슬리퍼 MEN - LIGHT GRAY/BLACK/NAVY WOMEN - SCARLET/PINK/AVOCADO <del>\$20.99</del> <b>\$4.99</b> PAIR</p>	<p><b>Tiara Spoon and Chopsticks Set of 4</b> 티아라 사인사색 수저세트 PINK &amp; VIOLET &amp; BLUE &amp; MINT <del>\$20.99</del> <b>\$14.99</b> SET</p>

UNTIL MAR. 28, 2024

**JINGA**  
꽃게강정

**SEASONED FRIED BABY CRABS**  
Every Body's Favorite Banchan!

~~\$7.99~~  
**\$5.99** (8 OZ/PKG)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MAR. 21<sup>ST</sup> - MAR. 28<sup>TH</sup>, 2024

**HAITAI**

Haitai

**Matdongsan  
Snack**

해태 맛동산

**2\$5** FOR **10.58 OZ**



**HELLO HOME**

**Portable  
Butane Gas Stove**

헬로홈 휴대용 가스렌지

~~REG. \$23.99~~

**\$13.99** EA **BLACK**

**Built-in windshield and  
long pan support for stability**

내장형 바람막이와 안정성을  
위한 긴 팬 지지대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Participation limited to select stores. Please verify with your local store prior to visi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bong@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ass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슨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yung@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송기연  
978.454.2045  
sogk@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817.447.099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헤디 김  
917.782.7899  
heidkim@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리  
978.866.3248  
ginalee@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주  
401.835.3387  
joun@bostonpremierrealty.com



사리킴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킴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준  
617.538.6973  
sojunhwang1@gmail.com



미라 송  
213.503.0397  
mir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리  
413.507.1402  
mikilee@bostonpremierrealty.com



선광환  
617.913.3289  
sunghwan@bostonpremierrealty.com



최건진  
617.877.9387  
jheo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ayoung@bostonpremierrealty.com



관희숙  
781.999.1214  
gwanhee@bostonpremierrealty.com



지현경  
617.515.9182  
jihyeon@bostonpremierrealty.com



이은경  
617.543.5728  
ee@bostonpremierrealty.com



태건기  
404.841.5182  
heongi@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617.224.569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02  
nancywang113@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879  
xian2011@gmail.com



Lu Jiang  
246.449.0117  
jenglui@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8.960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6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8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8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9.2920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838.7212  
lwo@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238.0295  
cyrystal@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루 박  
291.448.8595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재이크 김  
781.396.0400  
jerrick@bostonpremierrealty.com



이성민  
857.285.0434  
lsm@bostonpremierrealty.com



Mimi Bolinger  
413.237.1686  
mimib@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81) 주식 투자 실패 이유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주식시장이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다. 본인만 뒤쳐지는 것 같아 주식시장에 귀를 기울인다. 어느 시점에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가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시점에 의한 투자 결정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쉽다. 투자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주식시장 오르고 내림에 상관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다.

주식을 사고판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잘하기보다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투자라고 워런 버핏은 충고했다. '자녀의 재무 IQ를 높이는 방법' 의 저자인 존립의 투자 실패 원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투자 실패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한 투자자에게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자존심: 개별적인 기업 종목을 선택하거나 펀드 매니저가 운용되는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면 주식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겸손이 필수이다

투자비용이 매우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를 통해서 '평균' 수익률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대다수 투자자를 오히려 능가할 수 있다.

탐욕: 지나치게 공격적인 주식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절제의 마음과 투자자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조언을 따르고 포트폴리오의 높은 주식 보유는 위험하다. 채권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금융 음란물에 중독: CNBC와 Fox Business의 투자에 관한 소식은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가치가 없다. 또한 단기 투자를 조장하여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한다. 금융 미디어를 끄고 스마트폰에서 금융 앱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러움: 주위에서 어떤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비싼 값에 투자하고 낮은 가격으로 파는" 근본적인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한다. 본인의 투자 성과를 다른 사람들의 투자 성과와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투자 성공은 상대적인 성과가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친지들의 투자 성공 무용담의 숨어있는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조급함: 투자하는데 은근과 끈기가 부족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 시장에서의 인내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으로 측정된다. 21세기의 첫 10년은 누적 1%의 손실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10년은 연간 수익률이 13.4%, 그리고 2020년대 4년간은 11.9%로 상승했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그다음 10년 후는 놀라운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인내심과 주식시장 역사가 반드시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에게 큰 이정표를 제시한다.

두려움: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너무 소극적으로 투자한다. 이것은 물가 상승만큼 수익을 받지도 못한다. 물가는 구매력을 연간 약 2~3% 감소시킨다. 현금 투자는 물가 때문에 매년 손실이 보장되는 것이다. 주식의 역사적 수익률을 이해하고 주식에 대한 두

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주식 통계에 따르면 S&P 500은 어느 날 하루 하락할 확률은 46%이고 어느 한 해에는 손실을 볼 확률은 27%이지만, 10년 동안 손실을 볼 확률은 5%, 20년 동안 0%로 떨어진다.

금융상품 과실: 변액 연금(어뉴이티), 주가지수 연금, 현금 가치 종신보험, 등은 투자와 보험을 혼합한 것이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는다. 투자와 보험은 분리해야 한다. 금융상품에서 말하는 '투자 보장' 유혹적인 말이지만, 낚시밥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투자 목적 없음: 투자 목적 진술서 작성이 필요하다. 학자금 마련이나 노후대책처럼 투자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설정되지 않으면 투자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할 수도 없다. 동부에서 서부 여행할 때 어떻게 가는지 계획이 없다면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2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면 그대의 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윤궁이 또 말하기를, "장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어찌 한 여자를 염두에 두겠습니까? 첩이 있으면 저의 일을 대신하게 되니, 기쁜 일이지 투기할 일이 아닙니다. 지아비를 위하여 하는 일이 많은 것은 처의 영광입니다" 라고 했다. 그후 문노는 술을 조금씩 마시기도 하였고 한 명의 침첩을 두었으나 난잡하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성안의 사람들은 "지아비를 택할 때는 문노와 같아야 하고, 처를 얻는 데는 마땅히 윤궁과 같아야 한다" 고 말했다. 그들은 평생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도 같아하였다. 606년, 문노는 69세의 나이로 죽었다. 윤궁도 같은 해 사망하였다. 그녀의 나이는 59세였다. 문노의 화상은 포석사에 모셔졌다. 즉 신궁의 선단(仙壇)에 신으로 모셔졌다는 것이다. 김유신은 삼국을 통일한 후 문노를 사기(士氣)의 으뜸으로 삼았다. 그리고 신문왕은 문노를 각간(1등급)으로 추증하고 대제를 행하였다.

이에 앞서 582년, 문노는 자신의 수제이자 화랑의 부제였던 비보랑(秘寶郎)에게 풍월주의 위를 넘겨주고 호국선(護國仙) 낭도들의 무도를 연마시키며 부인 윤궁과 함께 장남 대강(大剛)과 갓 태어난 차남 충강(充剛)의 재물을 만끽하고 있었다. 후일(654년)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하는데 김유신과 함께 가장 큰 공을 세우

고 상대등에 오른 문노의 삼남 금강(上對等 655년 ~ 660년, 김유신은 금강이 죽은 후에 그를 이어 상대등이 되었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노를 이어 9세 풍월주가 된 비보는 문노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다. 비보는 549년 7세 풍월주 설화랑과 동년에 출생하여 가까이 지내면서 노래와 피리 등 여악을 함께 배웠지만 설화랑에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로 소질이 없었다. 그래서 문노의 제자가 되어 격검술을 배우니 마침내 가장 뛰어난 수제자가 되었다. 비보가 18세 때인 566년(또는 567년, 세종이 6세 풍월주로 대장군 이사부와 김무력이 등이 이끄는 군사들과 함께 신라의 국토를 확장하고 있던 무렵이다)에 유지(柳枝)라는 여객이 신촌귀몰하며 여러곳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두목 유지를 따르는 무리(화랑세기에는 난도(亂徒)로 기록하였다)는 점점 늘어났다. 이에 조정에서 여러차례 군사를 보내 소탕하려 하였으나 여러번 실패하였다. 그래서 당시 격검술의 2인자로 명성이 날리던 열여덟 살의 비보가 선발되었다. 그는 낭도들을 데리고 유지의 진영을 찾아가 그녀를 생포하였다. 다만 화랑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유지가 비보의 아름다운 풍모에다 의협심이 강하게 보여 스스로 항복했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난도' 들의 무리를 소탕한 비보는 그들을 가

련하게 여기며 모두 풀어 주었다. 그들은 다시는 때를 지어 소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뿔뿔히 흩어졌다. 그런데 유지는 홀로 가지 않고 "나는 다만 그대를 좇아 죽기를 원하지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그래서 비보는 유지를 데려와서 첩으로 삼았다.

비보는 미실과 내외종간이다. 즉 미실의 아버지 미진부와 비보의 어머니 실보가 남매간이다. 비보의 아버지는 비대전군(比臺殿君)인데 부모는 법흥왕과 옥진이다. 법흥왕이 적자가 없어서 차기왕을 선택할 때 비대는 박영실(옥진의 남편이자 법흥왕의 누이 보현공주의 아들)과 함께 왕위계승 1순위에 있었다. 그런데 법흥왕의 적녀 지소(眞興王之母)가 1세 위화랑(威化郎의 아버지)과 삼엽공주(부모는 법흥왕과 벽화, 실보의 어머니로 비보의 외조모)와 함께 손잡고 갓 일곱 살인 자신의 어린 아들 삼맥종을 즉위(540년)시키고 551년까지 섭정을 하였다. 당시 지소는 계부(繼父) 박영실과 부부사이였지만 왕후가 되기보다는 태후를 선택하여 직접 권력을 휘둘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2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시편을 읽고 또 읽으며 며칠을 깊은 생각에 머물러 있다. 그레 시인의 가슴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삶은 생각처럼 그리 만만치 않음을 깨닫는 오늘이다. 서로 부딪히면서 스치는 인연에 웃음과 울음을 내고 생채기도 그어가며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렇게 서로 치유하며 사는가 싶다. 이 세상에서 홀로이지 않은 것이, 외롭지 않은 것이 그 무엇 하나라도 있을까. 서로 마주 보고 있어도 외롭고 고독한 것을 애써 변명하지만, 세상과 마주할수록 사람과 마주할수록 더욱 깊이 사무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병인가 싶다.

사람으로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우리의 세상인 까닭이다. 그래서 살 만한 세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아닐까 싶다. 저 들꽃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 오지 않는가.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꺾여질 듯 꺾여지

지 않고 바람을 타는 저 들꽃을 보면 행복해지지 않던가. 흔드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저 들꽃을 보면.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나처럼 하늘을 본다. 그 무엇과도 경계 짓지 않아 좋은 파란 하늘과 하얀 물방울구름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내 곁에 있는 것들도 모두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마주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들꽃과 들풀도 햇살 가득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다. 자연과 함께 마음을 마주하면 속에 가득 찬 욕심이 조금씩 녹아내린다. 나도 이 커다란 우주 안에서 하나의 작은 자연임을 깨닫는 순간 행복이 저절로 몰려온다. 굳이 그 어떤 종교를 들추지 않아도 저절로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절로 흘러나온다.

살면서 하루쯤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면, 세상과 바쁘게 걸어온 험퍽거리는 숨을 걸 따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계절과 계절의 셋길에서 바쁘게 옮기던 발걸음의 보폭을 천천히 옮기며 무심히 지나치던 자연과 마주해 보자. 들 개의 들풀과 들꽃과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바람 그 바람을 타

며 즐기는 나뭇잎들을 가만히 만나보자. 잊고 지내던 그들의 얘기가 바람을 타고 깃가에 하나 둘 들려오리라. 그동안 듣지 못하고 있고 살았던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리움의 언어들 이 가슴으로부터 하나 둘 올라오리라. 내 가슴에서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던 내 그리움의 언어들 이 하나 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참으로 고운 시어에 눈물이 고인다. 아, 시인은 어찌 저리도 맑디맑은 영혼을 노래했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흔들리는 들꽃을 얼마를 보았던가. 저 흔들리는 꽃에서 바람을 보고 비구름을 보았을 시인의 맑은 영혼이 가슴 속을 파고든다. 그레 피고 지는 꽃을 보면 우리네 삶과 어찌나 닮았는지 가끔 들꽃과 들풀과 마주하면 인생의 긴 여정을 느끼게 된다. 땅의 기운과 하늘의 소리로 들꽃과 들풀은 욕심부리지 않아도 잘 자라 꽃피우고 열매 맺는데 어찌 이리도 사람만이 안달하고 복닥거리며 사는가 싶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어찌 이리도 사유 깊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레 사랑이란 이처럼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 죽을 것만 같은 것이리라.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살아 또 마주하는 삶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사랑이란 보내는 가슴이나 남아 있는 가슴이나 떠나는 가슴이나 모두가 아픈 것이다. 살면서 가슴 한편에 시린 사랑 하나쯤 남겨두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시린 가슴 다독이며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랑이 찾아 오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다 보면 문득문득 지난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이 사람일 게다.

"짓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달라고 한다. 도대체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모두가 원하는 것일까. 행복의 색깔은, 모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제는 인생이란 것이 어떤 빛깔인지를 어렵듯이 알아간다. 그 어떤 삶일지라도 평범한 삶이란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원하던 원치않던 간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삶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삶은 그래서 슬픔도 행복도 따로이지 않는 생각을 한다. 삶은 그저 사는 것이다. 그 빛깔이, 색깔이, 모양이 어떻게 간에 자기가 누린 만큼의 것이란 생각을 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견리망의見利忘義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견리사의見利思義. 논어에 나오는 글귀이다. 이례로움을 보면 의의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안중근의사는 글자를 친필 유묵으로도 남겼다.

견리망의見利忘義. 작년말 한국신문에 났던 글귀이다.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는 커녕 까맣게 있다는 뜻이다. 한국대학 교수들이 한해를 돌아보며 인용한 사자성어라 했다.

이런 사자성어는 해마다 나온다. 그런데 몇해전 것을 얼핏 훑어 볼적엔 고개가 가우뚱해진다. 온통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한 것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제 공부라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내눈엔

이상異常하게 보인다.

내게 묻는다면 내 대답이다. 이상난동異常暖冬. 정상이 아닌 이상하리 만치 따뜻한 겨울날씨였던 거다. 아닌게 아닌바 지난 겨울엔 비도 잦았다. 눈이 아닌 비라니. 지구과학자들의 진단인데, 엘레뇨 현상이라 하던가. 하긴 작년 12월 중순엔 나방을 본적이 있다. 겨울잠에 들어있어야 마땅한데, 따뜻한 날씨때문에 햇갈렸던 모양이다.

곽재구 시인이다. 그 해는 아마 사십 수년전 일텐데, 그해에도 엘리뇨가 있었던 모양이다. 몇구절만 옮긴다.

'그해 겨울은 포근하였다./미

국 이민을 간 삼촌에게서 편지가 왔고/오리사로 중동에 간 한수아 범에게서는/매달 700불이 꼬박꼬박 송금되었다./벨셀을 양아도 애인들의 손끝에 송이눈은 내리고/임진강물은 휴전선을 넘어서도 졸졸 흘렀으며/나 어린 초병이 너희는 내 적이 아니라고/눈 위에 뜨겁게 썼다.' (곽재구, 그해 겨울 중에서)

한국 일기에보엔 왕왕 '전국적으로' 라는 말로 시작된다. 비가 오든지 흐리든지 눈이 오든지. 춥든지 따뜻하든지 국토가 좁아 그럴 게다. 그런 한국도 예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따뜻했던가. 이역시 기후변화 덕인가?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 말이다.

지난 몇해 보스톤 겨울 평균기온은 몇도쯤음인가. 섭씨 영하도 근방일텐데, 얼음도 얼듯말듯 했을게다. 이전 차갑고 눈많은 몇해 전이 까마득한 옛날 인양 싶은 거다. 견온망냉見溫忘冷인게라. 동장군은 왔다가 행하니 가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달력으론 3월 중순이니 봄이다. 오늘도 날이 흐린데, 비가 뿌릴 듯하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라 기억할 수 있겠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16)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나이 드니 더 어지럽다' 단순한 노화로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신경과 박 지현 진료부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5세 남성인 일우 씨는 20년 동안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를 포함해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고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머리가 멍하고 멍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요?” 일우 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세 곳이나 다녔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뇌 MRI를 촬영한 결과 뇌혈관 여러 곳이 막힌 흔적과 무증상 뇌경색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약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할 때면 병원에서 준 약을 먹었지만 효과도 없고 졸리기만 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편

이었지만 어지럼증이 심해 넘어질 것 같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어지럼증은 어느 연령대나 생길 수 있지만 노년기로 갈수록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어지럼증은 7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이며 85세 이상에서는 50%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우 씨처럼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 원인을 발견할 수 없으니 치료도 한 어렵다. 결국 나이 때문이라며 체념하기 쉽다. 하지만 노년기의 어지럼증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낙상의 위험을 매우 높여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노년기의 어지럼증은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 아니면 질병일까? 노년기에는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도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이석증, 뇌졸중, 심인성, 자율신경성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빈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사례처럼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서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몸의 여러 감각이 잘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체성감각(관절과 근육에 전달되는 감각), 전정감각(속귀에 있는 균형조절감각), 시각 등이 대표적이

다.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듯이 이런 감각정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기능이 저하되어 특별한 질병이 없이도 균형잡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태를 “어지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은 혈압약이며, 노년기에는 여러 종류의 혈압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히스타민제, 우울증 치료제 등 항콜린성 작용이 있는 약물도 어지럼증을 흔하게 유발한다. 항불안제, 근육 이완제, 전립선 비대증 약물 등도 어지럼증의 원인이 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신경과 박지현 진료부원장은 “노년기 어지럼증은 한가지 질환이 아닌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급성 어지럼증은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그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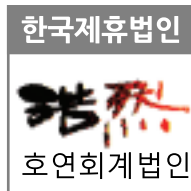
박 진료부원장은 “노년기 어지럼증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며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많은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대중적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며 “일우 씨는 수년간 악화되는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를 호소했지만 적극적인 균형재활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됐다. 노년기 어지럼증은 정확히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 드니 더 어지럽다” 단순한 노화로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sup>nd</sup>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3.27. ~ 4.01.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04.01.**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투표장소**  
Voting Place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신분증명서 (단, 재외선거인은 국외재민서류 원본 함께 지참)

※ 국외재민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외재민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